광주 수입과자 할인점 "자고나면 생기네"

충장로 인근에만 5곳 성업중·곳곳서 개점 준비

50~80% 할인 인기…유통기간 위반 등 우려도

광주에 '수입과자 할인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확장세를 보이던 수입산 과자 열풍이 이젠 오프라인으로 옮겨지고, 대형마트 역시 관련 매대 크기를 점차 키우는 모습이다.

13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광주 지역에 수입산 과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이 늘기 시작했다. 4월 현재 충장로 인근에만 5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개점을 준비하는 곳까지 합하면 1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체인점인 '세계과자 할인점 레드버켓'은 충장로에만 2개의 점포가 있으며 최근 풍암지구에 점포를 낸데 이어 수완지구 등에도 가게를 낼 계획이다. 또 다른 체인점도 가맹점을 내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자리를 물색 중에 있으며 여기에다 임시간판을 걸고 수입과자를 할인해 파는 매장까지 가세, 당분간 수입과자 할인점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게의 인기는 파격적인 가격 덕분이다. '수입산이니까 비쌀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수입 과자 할인점에는 1000원도 안 되는 과자가 많다. 충장로에 위치한 가게의 경우 용량이 큰 제품을 제외하고는 2000원 이상의 과자를 찾기 힘들다. 약 400종의 수입과자들이 500~4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들은 200원에도 판매한다.

이러한 예상밖의 파격적인 가격은 수입과자 할인점들의 판매 전략이 '박리다매'라는 점때문에 가능하다. 해외 직수입과 병행 수입으로 과자를 대량으로 확보한 이들 전문점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과자를 기존 시중가보다 50~80%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수입과자 할인점을 자주 찾는다는 이은미(36)씨는 "제품이 다양한 것은 물론 가격까지 저렴해 대량으로 사 가곤 한다"며 "국내 과자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만원 어치를 사도 양이 별로인데, 여기선 그 가격이면 실컷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레드버켓의 한 관계자는 "해외 직수입과 병행 수입으로 과자를 대량 구매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며 "정식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통해 점포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게 자체가 크지 않으니 창업비용도 많이 들지않고, 판매·관리도 어렵지 않아 소자본 창업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산 과자 열풍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은 수입과자 할인점만이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백화점 등 대형마트의 수입과자 코너도 매출이 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의 과자 매출 중 20% 이상을 수입과자가 차지한다는 발표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수입과자 할인점 열풍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자칫 수입·판매에 허점이 발생할 경우 불순물 유입이나 유통기간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창업희망자들 역시 동종업체와 대형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사업 안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구청은 수입과자 할인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 대용량포장 제품(벌크제품)을 낱개로 뜯어 판매하면서 드러난 한글표시사항 위반과 최소판매단위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조치했다.

충장로 인근에 매장을 연 한 업주는 "국산 과자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새로운 맛과 형태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기지만 증가하는 동종가게와 중소상인들의 호황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대형업체의 공세가 난제다"라며 걱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3일 광주 충장로에 문을 연 한 수입과자 할인점에 기존 판매가 보다 싼 가격에 수입과자를 사려는 고객들이 성황을 이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용카드·통장 비밀번호 6자리로

인터넷 뱅킹 본인 확인 금액 100만원으로 낮춰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부정 사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르면 연내 신용카드 및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존 4자리에서 6자리로 늘어난다. 시중에 흘러넘치는 개인 정보를 악용한 전자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시 본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 1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상시 적용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포스단말기 해킹 사고에 자극받아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숫자를 늘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4자리여서 쉽게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만큼 비밀번호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유럽의 경우 이미 비밀번호로 6자리를 쓰고 있으며, 신용카드 보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비밀번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포스단말기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기존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번 포스단말기 해킹에서 털린 제휴카드의 비밀번호가 대부분 4자리인데다 고객이 신용카드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휴카드 정보만 유출돼도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정보유출 금전 피해는 없어"

광주은행은 포스단말기 해킹사고로 10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과 관련, "광주은행의 경우 개인정보는 새나갔지만 돈 인출 등 실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누출 과정에서 광주은행 전산망이 직접 해킹된 것이 아니라 할인마트, 백화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포스(POS) 단말기 관리 업체 서버를 해킹해 카드정보를 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경우에도 절반은 해지, 재발급, 유효기관 경과, 분실코드가 설정돼 피해가 없었다"며 "나머지 절반도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찰이 포스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해 320만 건의 카드 거래 정보를 빼낸 일당을 최근 적발하면서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분류한 결과 10개 은행 겸영 및 전업 카드사에서 10여만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신한카드가 3만5000 건, 국민카드 3만3000 건, 농협카드 3만 건, 광주은행 1만7000 건 등이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2000선 박스권 등락 예상…철강·여행·증권주 관심을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매수와 2000포인트 근접시마다 증가하는 펀드환매에 따른 기관의 순매도가 증가하며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일진일퇴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원화강세 국면에서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 이후 투자심리 위축과 국내 수출주의 이익 모멘텀 둔화 가능성이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탈로 코스피지수 급락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하향이탈하며 1030원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증시측면에서는 환율 방향성 보다는 그 속도와 변동성이 중요하다. 급격한 원화강세는 장래 수출부진 우려로 확대될 수 있지만 완만한 원화강세는 세계 경제의 순항과 개선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 시즌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1·4분기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그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 사이에선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와 이머징증시의 상승에 따라 코스피지수 2000선 안착 및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주 후반 미국증시의 급격한 하락에도 국내증시는 약보합세로 한주를 마감하며 선방했고 국내증시에 영향력이 큰 중국경기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경기부양책 발표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코스피지수 2000선 안착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있는 외국인순매수 종목이 조선과 화학 등 경기민감 업종대표주로 확대가 필요하고 투자자들이 학습효과에 따라 2000포인트 근접시마다 가파르게 증가되는 펀드환매가 진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내증시는 환율변동성과 지난 주 미국시장 하락의 영향이 주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큰폭의 추가 하락보다는 195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하락과 연중성수기에 진입하는 철강, 여행주와 장기불황에 따라 구조조정에 진행되고 있는 증권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광주 광산업 영문판 해외 홍보책자 배포

해외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광주 광산업 홍보 책자가 배포된다.

광주시는 세계적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에 따른 LED 조명제품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타르 등 해외 주요 거점에 광주 광산업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홍보 책자는 ▲MIG브랜드 우수제품 안내 책자(브로슈어) ▲광주 광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담은 '포토닉스 광주' ▲광주 광산업 기술력의 대외 홍보의 장이 될 '2014 국제광산업전시회' 홍보 책자 등 영문판 3종 총 5000부다.

MIG브랜드 우수 제품 안내 책자(브로슈어)에는 광주지역 우수제품의 판로 지원과 도시 마케팅을 위해 개발된 MIG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업체 40개 제품의 특징과 용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해 소개했다.

홍보 책자는 광주시의 KOTRA 해외무역관에 우선 배포하고, 해외 거점에 보내 광주 광산업 제품의 마케팅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로또복권 (제 59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9	10	13	24	33	38	2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532,833,500	9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37,084,682	62
3	5개 숫자 일치	1,264,715	1,818
4	4개 숫자 일치	50,000	87,413
5	3개 숫자 일치	5,000	1,383,890

전국 첫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광주·전남중기청 내일 광주과학기술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전국 최초로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과 공동으로 1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2014 광주·전남 산업기능요원 채용상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채용상담회는 2015년 병역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시키고자 하는 특성화고의 '만남의 장'으로 치러진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산업기능요원을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하고 있어, 병역지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신청기간인 6월 이전에 특성화고 학생과의 채용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회에는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 11개 특성화고와 200여개의 중소기업간 채용 협약이 이뤄질 예정이며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특성화고에서는 적합한 학생을 선발,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와 연계해 '온라인 청년채용박람회'도 30일까지 2주간 함께 열린다. 온라인 박람회는 홈페이지(myjob.jobkorea.co.kr)에서 구직자가 취업희망 기업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